

9 월의 경축행사, 세계는 무엇을 보았는가

령도자와 꿈같은 시간을 보낸 근로자들

《오직 이 땅 위에, 이 하늘 아래에서만 펼쳐질 수 있는 화폭이다!》

이 것은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공화국 창건 73돐 경축 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을 만나 주시고 성대한 연회를 펼쳐 축하해 주시는 영상을 목격하고 공화국인민들이 이주동성으로 터치는 웨칩니다.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고 국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한몸을 내내며 헌신분투하는 애국자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트락에 부르시여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고 본부청사 정원에서 성대한 경축연회까지 펼쳐주시며 혈연의 정을 부여하시는 이런 경이적인 사변은 오직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이곳에서 얼마나 증대한 나라의 국사들이 의되여왔는가.

그러나 국가급의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간부도 아닌 평범한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이 당중앙위원회트락에서 열린 연회에도 참가하고 령도자와 기념사진도 찍으며 한시술처럼 어울려 꿈같은 행복의 시간을 보내었다.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돌아보아도 평범한 근로자들.

인민의 존엄이 하늘에 닿아 있고 인민의 권익을 위하여 당도 있고 국가도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는 화폭이었다.

지금 자본주의사회를 놓고 보면 인민은 버림받는 존재로 되고있다.

99%와 1%로 갈라진 사회구조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대중은 극소수 특권층을 위해 복무하고 피압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무지렁이신세와 다를바없다.

하나 이 땅에서는 인민이 가장 존엄있는 존재로 떠받들리우고 국가의 최고중대사가 론의되는 당중앙위원회청사의 트락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웃음짓고 있는 것이다.

머리에 백발을 엮은 과학자대표도, 인민들과 친숙해 진 교령의 너방총원도, 반백의 예술인도 어머니품속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들 마냥 김정은령도자의 옷자락에 매달리고 따뜻한 그 손을 꼭 잡고 발을 뚫고 구름 높을줄을 몰랐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심부름군을 가지고있는 인민들이다.》, 《저런 나라에서 저런 인민으로 살고싶다.》

세상사람들이 터친 부러움과 찬란의 이 목소리들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어제는 피해지역의 인민들이 군당위원회청사의 처마아래에서 삶의 것을 버리고 근심걱정없이 생활하였다면 오늘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이렇듯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앞에서 어머니를 한자리에 모신 자식들마냥 값있는 인민과 행복의 순간들을 향유한다.

노동자대표의, 농민대표, 인민의 심부름군...

이것은 단순히 당중앙위원회트락만이 아닌 그 트락과 이어진 이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들을수 있는 세상에 없는 인민사랑의 부름, 자재로운 어머니를 모신 인민의 나라에서만이 울려나올수 있는 값있는 부름인 것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인민을 위하여 온갖을 다 바쳐가고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입니다.

인민을 위한 교생은 자신의 직업이며 교생을 물어 인민의 기쁨을 얻기 위해 가는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하시며 걸으시는 길이 경에하는 원수님 특유의 위인적인 길이다.

그이께서 가슴이 한번씩 뭉클 젖어드는 행복에 잠기

시는것도 오로지 인민으로 해서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것도 혈육처럼 사랑하는 인민들생각으로 해서이다.

공화국이 창건되어 어언 73돐, 그 뜻깊은 령정을 추억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경축대표들은 얼마나 뜨거운 화역을 더듬었던가.

이 땅위에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는 인민으로, 위대한 인민으로 키워주시려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바친신 로고와 심혈의 날과 달이 가슴에 뜨겁게 젖어드는 순간이었다.

자신의 로고는 다 감추시고 경축의 밤을 밝히시며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실 때 오열을 터치며 만세를 부른 그들이었고 이 나라 인민들이었다.

그런데 주신 사랑 적으신 듯 당중앙위원회트락에까지 불러주시어 온갖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시니 그 자랑, 긍지를 안고 세상이 보란듯이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화폭의 주인공이 되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성스러운 애국의 력사속에는 지켜선 일터와 초소마타에서 근로의 땀을 뿌리며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과학과 문화전선의 선두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며 사회주의문명의 개화기를 열어가는데 크게 공헌한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의 공적이 진하게 스며들어 있다고 값있는 치하를 주실 때 이들은 응당 할 일을 한 자기들의 자그마한 소행을 크게 여기시는 자재로운 어머니의 사랑에 목이 메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가장 평범한 근로자들, 인민들이 존엄높이 떠받들리우고 가장 좋은것, 가장 훌륭한것은 그들에게 차폐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었는가.

그밤, 거대한 하나를 이룬 인민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경축의 밤에 이 나라 인민이 세계에 준 충격은 어떤것이였으며 과연 그들의 모습에서 세계는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누군가 말했다. 지도자에 대한 인민들의 태도는 예민한 청우계와도 같다고.

그만큼 인민은 령도자의 헌신적자애와 품모에서 인민에 대한 그의 진정을 가늠하는 것이며 그것을 느낄 때



인민의 환호는 말한라



그들은 서로 달랐다.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하지만 경축의 광장에 높이 모신 령도자를 우리러 터치는 그들의 환호성은 똑같았다.

그밤, 거대한 하나를 이룬 인민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경축의 밤에 이 나라 인민이 세계에 준 충격은 어떤것이였으며 과연 그들의 모습에서 세계는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누군가 말했다. 지도자에 대한 인민들의 태도는 예민한 청우계와도 같다고.

그만큼 인민은 령도자의 헌신적자애와 품모에서 인민에 대한 그의 진정을 가늠하는 것이며 그것을 느낄 때

는 인민의 모습, 한발자욱이라도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이를 뵈고싶어 김일성광장의 이쪽저쪽에서 원수님게시는 주석단을 향해 어푸러질듯 달려가는 청춘 남녀들의 그 모습이 바로 경에하는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사는 이 나라 인민의 참모습이다.

진정 열병식과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진행된 그날밤의 모습은 어느 이튿날 연출가도 문장가도 방불하게 그려 내기 어려운 참으로 진실하고 감동적인 화폭이었다.

그런 진실하고 감동적인 화폭들을 어찌 9월명절의 그밤만이 간직하고있는것이였는가.

일찍 생각만 해도 스치는 모습들이었다.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떠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을 배려하며 가슴을 치는 바다물속에 뛰어들어 《만세!》를 부르던 군인들의 모습, 위대한 인민이라고 불러주시는 경에하는 그이를 우리러 격정의 눈물 하얗게 이 흘리며 《만세!》를 목청

껏 부르던 인민들의 모습, 전쟁로병들을 도덕리적으로만 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들로 생각하며 존중하고 귀중히 여긴다고 하신 경에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만세!》를 웨치던 전쟁로병들의 모습,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동무들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만세!》를 부르던 소년단원들의 모습, 수재민들을 위해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하늘길, 배길, 령길을 달리시여 피해복귀전투장을 찾으신 경에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만세!》를 부르던 피해지역인민들의 모습...

잠자면 끝이 없는 그 모습들은 조국방 방방곡곡, 이 나라 력사의 갈피갈피마다 경에하는 원수님과 인민이 함께 새긴 명화폭들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이것이 오늘도 변

함없이 이어지는 조선의 모습이다.

무엇을 하나 보시여도,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편리해하는가를 물으시는 것이,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면, 인민을 위한 길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온 한해 쉬임없이 열사복무의 길을 걷고걸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

하기에 인민은 남나로스 누구나 그이를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며 스스럼없이 따라나서는것이요 《김정은동지 만세!》를 심장으로 부르는것이 아니겠는가.

경축의 밤에 울린 《만세!》의 환호.

정녕 그것은 이 나라 인민이 위대한 령도자와 생각을 함께한 그 모든 날들에 다지고다친 신년의 분출이였으며 이는 오직 공화국인민만이 가질수 있는 고유한 사상강정이다.

본시기자 리연선



공화국창건 73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날에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민간 및 안전부력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9월의 경축광장에 펼쳐진 열병식은 함포방위, 조국수호의 강위력한 전투대오,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억척부대로 장성강화된 민간 및 안전부력의 위상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이 열병식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민간열병총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잘 짜이고 세련된 열병총대들의 보무당당한 행진모습, 정규군에 못지 않는 무장장비들이었다.

세계인들은 열병식에 대해 전하면서 《선과 집중을 통해 비정규군의 위력적 우수성을 과시한 위력한 열병식》,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갖춘 비정규군의 위력적 우수성을 과시》, 《강력한 자위적 민간부력을 가지고있는 군사강국이라는것을 국제사회에 각인》,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강한 힘을 보여준 열병식》 등으로 광



범히 보도하였다.

세인이 격찬하였듯이 이번 에 진행된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대원들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고 낫과 북을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고 있는 로동적위군 대원들이다.

평시에는 자기의 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규군에 못지 않게 철도있으면서도 기세차게 행진해나가는 위풍당당한 모습은 민간부력의 전투력적 위력한 방위체계이라고 하시면서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고》이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로동적위대가 전투력있는 불패의 대오로 장성강화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입니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는 적들의 어떠한 침공도 막아낼수 있는 군사전략상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라고 하시면서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고》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로동적위대가 전투력있는 불패의 대오로 장성강화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입니다.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여 온 나라를

1등을 하고서도 기쁨이 아니라 나라없는 설움에 눈물을 삼켜야 했던 불쌍한 조선민족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조선은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 국가의 존엄과 위용을 자랑스럽게 떨치고있으니 어디서나, 어느때나 힘차게 휘날리고있는것이 우리의 람홍색 국기이다. 9월의 경축광장을 도도히 누빈 민간 및 안전부력의 장엄한 열병행진을 보면서도 위대한 령장을 모시어 나라가 강하고 국가도 빛난다는 철의 진리를 더욱 가슴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우리의 국기를 이 땅 위에, 세계의 창공높이 펄럭 휘날려주시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73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행사가 진행되는 이날 나라를 비롯하여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을 친히 당중앙위원회트락에 불러주시어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연회도 마련해주셨으며 몸소 추배잔도 부어주시었으니 하늘같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겠는가.

정말 한없이 고마우시고 그 품 떠나 살수 없는 자재로운 우리들의 친어버이시다.

오늘 체육발전을 위하여 기울이시는 경에하는 그이의 관심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나라의 체육은 급속히 발전하고있으며 우리 체육선수들은 올림픽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각종 경기들에서 금메달로 공화국의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쳤다.

그날 경에하는 그이께서는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너 자마라손선수들속에서 정성



육선수와 같은 우승자들이 나오도록 할때 대해 말씀하셨고 또 언제인가는 나를 비롯한 우승자들이 신진선수들에게 좋은 경험도 배워주도록 할때 대해서 이르시었다.

나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승의 계주봉을 물려주기 위해 진할줄 모르는 힘과 열정으로 쟁쟁한 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해 전심전력하고있다.

공화국기가 빛나는 시상대의 높이나라의 높이이다.

나라와 인민의 기대를 안고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달려며 공화국을 휘날린 그때처럼 선수, 감독들의 체육기술을 부단히 발전시켜 앞으로 우승의 금메달로 나라의 명예를 더 높이 떨치는것이 나의 목표이다.

나는 당 제7차대회에 대표로,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로력혁신자, 근로자의 한사람으로 참가하여 경에하는 그이를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최상회의의 영광을 언제나 잊지 않고 나의 적은 힘이나마 다 바쳐 나라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정성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상협회 서기장)

조선의 강력한 민간무력

령장을 모시여 국기도 빛난다

보고 외국의 한 인사가 조선의 민방위력은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강한 힘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은 이제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민간무력만 가지고서도 능히 이길것이라고 평하였는데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로동적위군의 전투력과 위력은 비할바없이 더욱 강해져있다.

이번 열병식을 보고 세계가 정규부력에 못지않게 자기의 체모를 갖춘 강력한 무장장비와 조직체계 등 비정규부력의 위력을 세계앞에 과시한 군사적의미를 가진다고 평한것만 보아도 공화국의 민간부력이 얼마나 장성강화되었는가를 짐작해주시고있다.

탁월한 령장의 슬하에 더욱 강철같이 자라난 로동적위군 안의 전체 대원들은 만약 적대세력들이 이 땅에 또 다시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용감 떨쳐일어나 침략자들을 썰고 없이 쓸어버릴 멸적의 기개로 가슴끓이고있다.

최진욱